“아침드라마 찍었더니 가수때 없던 팬 생겼죠”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오승아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주연

연기 데뷔 성공 “새 직업 생긴 느낌”

“레인보우 활동을 7년 해도 없던 삼촌·이모팬이 6개월 간 아침드라마 한 번 하고 나니 정말 많아졌어요. 극 중에서 거의 민낯으로 나오다 보니 마트를 가거나 택시를 타고 알아보시고 밥도 사주세요. 아침극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웃음)”

레인보우 활동 종료 후 연기자로 전향, 첫 주연작으로 KBS 2TV ’TV소설-그 여자의 바다’를 택한 오승아(여·29·사진)는 120부작이라는 긴 여정을 끝내고도 활기가 넘쳤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그에게 아침극에 시대극이니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다고 묻자 “처음에는 아이돌 이미지에서 변신하기 위해 선택했는데 지금은 아침극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답했다.

그가 연기한 태산 국수공장 경리 윤수인은 집안사· 연애사 모두 가슴 절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1970년대 비운의 여성이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몰입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여성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인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머니, 할머니께 조언도 많이 구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참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 ‘얼참’(얼굴만 참한)일 정도로 밝은 성격이지만 6개월간 수인에게 빠져 지내다 보니 실제로 많이 차분해졌다고 오승아는 설명했다.

오승아는 극 중 아들 지훈(유준서 분)이 죽었을 때는 실제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하루 세 번은 울었다”며 “지훈이는 정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연기했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최정욱(김주영) 부장이 진심으로 원망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엄마 연습’을 했다는 오승아는 “자식에게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엄마가 된다면 정말 헌신할 것 같다”며 “모든 것을 쏟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09년 레인보우 첫 앨범 ‘가십 걸’로 데뷔한 오승아는 이후 드라마 ‘왔다! 장보리’(2014), 웹드라마 ‘88번지’(2016)를 거쳐 이번에 연기에 본격 입문했다.

그러나 그는 데뷔 전부터 오래 연기를 꿈꿔왔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영화과를 전공했는데 레인보우로 데뷔하면서 학교에 못 다니게 됐어요. 그룹활동을 하면서도 연기에 뜻을 뒀는데 하고 싶은 만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기도 했어요. 이제 연기자로서 2막이 시작됐으니 정말 원없이 연기하고 싶어요. 그룹활동 때는 모두의 삶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삶’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네요.”

오승아는 그러면서도 레인보우와 응원해주는 팬에 대한 애정은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사흘 전에도 현영이 생일이라 재경이네서 생일파티를 했는데, 음악방송을 다 같이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다시 뭉쳐서 팬미팅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또 저는 레인보우 활동이 끝나면 팬들도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촬영장에 커피차도 보내주신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오승아는 “직업이 새로 생긴 느낌”이라며 “조연이든 단역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으로서는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 요새는 여성 연기자들도 결혼해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가 부른 노래 평화에 도움 되길”

정동하·임다미, 광복절 맞아 통일 염원 노래 공개

정동하·임다미(오른쪽)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요/ 용기내어 꿈을 꾸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차별도 없이 사랑해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전 세계인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원 케이(One K) 글로벌 캠페인’의 노래,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 14일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공개됐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한국계 호주인 가수 임다미(여·29), 밴드 부활 출신의 가수 정동하(37), 보이그룹 보이스퍼가 참석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했다.

임다미는 “외할아버지께서 이북 분이셨는데, 남한에 건너왔다가 고향에 못 돌아가셨다”며 “보통 통일을 막연한 일로 생각하지만, (분단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현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제가 부른 노래가 조금이나마 평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통일은 분명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전 세계가 한반도 정세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제 노래가 미약하나마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다”라고 말했다.

이 노래의 제작은 세계적 팝 음악 프로듀서인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가 맡았다. 마이클 잭슨, 어셔 등 팝스타를 만든 지미 잼·테리 루이스 콤비는 6차례 그래미상을 받았으며 이들이 제작한 노래 가운데 16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래의 ‘투 톱’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주제가 ‘어 홀 뉴 월드’(A Whole New)로 널리 알려진 팝가수 피보 브라이슨과 임다미이다.

음원은 광복절인 15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병헌, 김은숙작가와 손잡다

tvN ‘미스터 션샤인’

내년 상반기 방영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사진〉이 손잡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송된다.

tvN은 ‘미스터 션샤인’을 내년 상반기 주말 드라마로 방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이 드라마는 SBS TV 편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작비 문제 등으로 인해 tvN에 안착하게 됐다.

올 상반기 tvN에서 ‘도깨비’로 시청률 20%를 넘기며 케이블 프로그램 시청률 신화를 다시 썼던 김 작가는 또다시 tvN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아울러 톱스타 이병헌은 9년 만의 TV 드라마 복귀작을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 선보이게 됐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가게 된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다. 소년이 성장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조국인 조선에 주둔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태리와 유연석도 출연한다.

tvN은 “올해 연말 홍자매의 ‘화유기’를 비롯해 이우정 작가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내년 노희경 작가의 ‘라이브’,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션샤인’까지 탄탄한 작품들로 드라마 라인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여름기획 다큐멘터리 3일 떠나면 보인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왕은 사랑한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제보자들(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걸어서 세계속으로		30 앙코르 MBC 스페셜	55 닥터 365
2	40 톡쏘는 인터뷰 소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프리파라 2 25 별별며느리	00 뉴스브리핑
3	00 팔도밥상 스페셜 10 KBS특선 여름에 만나는 대자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당신은 너무합니다 (재)	자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스톤에이지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35 죽어야 사는 남자 (재)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명견만리 특선 탈출, 인구절벽 3부작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 와이프 1~2부
12	35 특선 UHD 다큐멘터리 빅 아이디어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10 라디오스타 2부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서바이벌 어드벤처 - 남중국해 무인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꼬마버스 타요(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짜장덮밥과 애호박피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자연과 인간의 통합적 이해 - 유교 조선의 지적 모험〉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어벤져스: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휘게! 덴마크, 행복을 드릴까요 - 판타지 속으로, 헬싱외르〉
21:30 한국기행
〈한여름, 동굴속으로 - 비나이다 비나이다〉
21:50 EBS 다큐프라임
〈우포늪의 사람들〉
22:45 극한직업
〈수산물 하역 작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음 6월 25일 乙亥)

子 48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60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72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84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83

午 42년생 끝까지 진행하라. 54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66년생 하자가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8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90년생 대신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03

丑 49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에 한계가 보인다. 61년생 한 시름 놓게 될 것이니 부담감 갖지 말라. 73년생 양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85년생 방심한다면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72, 16

未 43년생 방심하지 말라. 55년생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67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니 잘 활용해 보아라. 79년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91년생 귀에 거슬릴지언정 삶에 도움이 되는 충고이니라. 행운의 숫자 : 13, 41

寅 50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62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74년생 대강 어림잡아도 틀림없을 것이니 속도를 내자. 86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혹스러워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67, 25

申 44년생 마음만으로는 유한하니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56년생 깊이 있게 관찰하여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8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80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5, 26

卯 51년생 깊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63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75년생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혜안이 절실하다. 87년생 관행만을 앞세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5, 21

酉 45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57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69년생 뜻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무탈하다. 81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5, 62

辰 52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64년생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안전할 것이다. 76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88년생 서로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1, 25

戌 46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58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응하고 있도다. 70년생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82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파격이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17, 44

巳 53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65년생 나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77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89년생 검증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04, 28

亥 47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59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71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까스로 해결된다. 83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22, 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